

즐거는 통학버스 사고... 달라지지 않는 어른들

광주교육청 조사... 안전교육 미수로 279건 등 안전불감 여전 지난해 찢통버스 아동 1년째 의식불명... 유치원 아직도 운영

광주에서 어린이(당시 3세)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고 이후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유치원 운영자와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279건에 달했다. 통학버스 미신고 27대, 승차차 보호기 미설치나 고장 52대 등이 적발됐다. 안전에 필요한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16대가 적발됐고, 스티커 등 보호표지 미부착도 21대에 달했다.

강구 보조발판 미설치 등 7대, 동승자 안전교육 미이수 13대 등도 적발됐다. 크고 작은 통학버스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7일 오전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B(7)양이 45인승 통학버스에서 내리려 못하고 30여 분 동안 갇혀있다가 지나던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인솔교사가 잠든 B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만 하차시키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에는 여수에서 어린이집에 도착한 2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아

이가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는데도 인솔교사를 비롯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통학버스 안전대책이 겹겹이 얹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29일 A군이 8시간 넘게 홀로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혀있다가 의식불명에 빠지자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벌이고 연 2회 안전교육 이수율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공·사립 유치원 609곳과 학원 564곳 등 모두 1173곳을 대상으로 안전 벨트와 동적감지센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또는 재계약 차

량에는 이들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두 577대에 7400여만원의 설치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A군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광주 광산구 S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폐쇄 명령과 징계를 거부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병원치료 중인 A군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유치원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오는 8월 10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장과 교사, 주임 교사 등 3명에 대해 징계계 요청을 했으나 징계권을 가진 사립 유치원 측은 징계를 하지 않았고 해당 교사와 주임 교사는 퇴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은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전관에서 ‘한반도 휴전협정 폐기-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이 휴전협정 폐기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검찰 간부 인사... 눈길 끄는 ‘호남 3인방’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사이버테러 등 첨단 수사 개척 조은석 서울고검장, 세월호 해경 구조 부실 수사 지휘 양부남 광주지검장, 공고 졸업·32년만의 전남대 출신



김오수 조은석 양부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호남출신 3인방’이 눈길을 끈다. 김오수(54·사법연수원 20기·영광) 법무연수원장장과 조은석(52·19기·장성) 서울고검장, 양부남(56·22기·담양) 광주지검장이다.

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양경찰의 구조 부실에 대한 검·경의 합동수사를 지휘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대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후 그는 통상 초임 검사장급이 배치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조지됐다 이밖에 부활했다. 서울고검장은 차기검찰 총장 후보군에 드는 요직이다.

신임 김오수 법무연수원장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특수통’이다. 영광 출신으로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서울중앙

지검 특수1부장으로 일하던 2009년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2015년에는 첫 출생한 대검 과학수사부를 이끌며 사이버테러·해킹 등 첨단범죄 수사 분야를 개척했다.

양부남 대검형사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금의환향했다. 전남대 출신으로는 32년만에 광주지검장을 맡게됐다. 전대 출신 광주지검장 1호는 김양군(제28대·1983

년 8월~1985년 10월) 전 대법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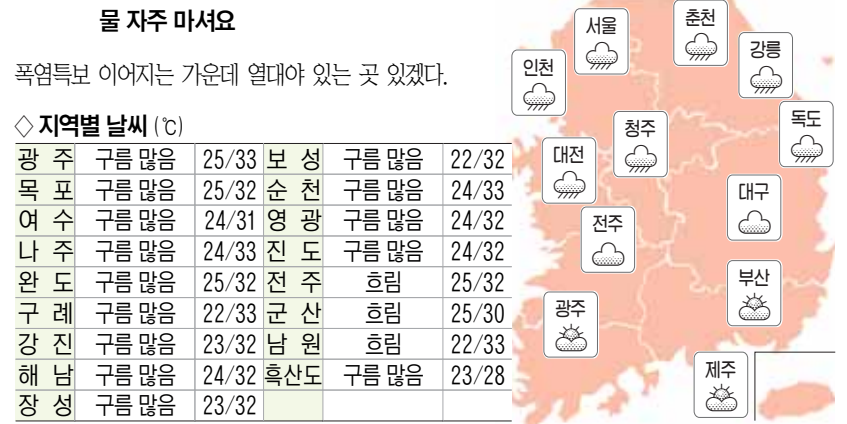
양 지검장은 이번 전보로 지난 2015년 12월 검사장 승진 이후 1년 8개월 동안 보직을 무려 5차례 옮기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기간 광주고검 차장검사→대구고검장 직무대리→광주고검 차장검사 복귀→대검 형사부장을 거쳤다.

양 검사장의 이력도 눈길을 끈다. 명문고와 수도권 법대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검찰 조직에서 ‘이단아’나 다를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공고(담양공고)·지방대(전남대 법대) 출신이다.

전남대 동문들은 큰 경사라며 반기고 있다. 동문인 임진석 변호사는 “지역 명문인 전남대는 수많은 검사와 변호사를 배출했지만, 검사장에 이어 광주지검장을 지낸 선배는 김양군 변호사에 이어 양부남 검사장”이라며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양 지검장의 성공적인 삶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8 해질 19:39
달출 10:32 달몰 22:53



물 자주 마세요		◇지역별 날씨 (℃)		◇생물지수	
지역	날씨	지역	날씨	지수	상태
광주	구름 많음	서울	구름 많음	식중독	주의
대전	구름 많음	부산	구름 많음	자외선	매우 높음
대구	구름 많음	제주	구름 많음	피부질환	매우 높음

목포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0.5	0.5
해상상태	중~남동	남동~남
파고(m)	0.5~1.0	0.5~1.0
해상상태	중~남동	남동~남
파고(m)	0.5~1.0	0.5~1.0
해상상태	중~남동	남동~남
파고(m)	1.0~2.0	1.0~2.0
해상상태	중~남동	남동~남
파고(m)	1.0~2.0	1.0~2.0
해상상태	중~남동	남동~남

◇돌매	◇주간 날씨	
	간조	만조
목포	10:47	05:43
	22:57	17:56
여수	06:10	00:10
	12:28	12:28

29(토)	30(일)	31(월)	8/1(화)	2(수)	3(목)	4(금)
☁	☁	☁	☁	☁	☁	☁
26/33	25/32	25/33	25/31	25/33	24/33	25/33

주말도 폭염 지속... 내주 월요일 단비

광주·전남에 한중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1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구름이 많이 끼고 일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인 월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단비가 내리면서 잠깐 더위를 식힐 전망이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한 4~10mm 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그밖의 날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다고 전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광주·전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고 낮 기온은 28~33도의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날씨가 전망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이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마시는 등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말인 29일과 30일에는 고기압의 가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 화물칸 사람뼈 추정 4점 추가 발견

세월호 화물칸 수색 중에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조각 4점이 발견됐다.

일과 26일에 발견된 유해와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됐다.

27일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세월호 2층 화물칸(C-2 구역)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중 뼈조각 1점을 수습했다.

발견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등의 전문가의 육안감시 결과 사람뼈로 추정됐다. 본부는 미수습자 가족의 요청으로 부위 및 뼈의 크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오전 8시45분 오후 세월호 2층 화물칸(C-2구역)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뼈 2점을 발견했다. 이어 오전 11시15분에도 같은 구역에서 수거한 진흙에서 1점을 수습했다.

한편, 이날 본부는 14점의 유류품을 수거했으며 현재까지 세월호에서 수습된 유류품은 4384점으로 이중 408점이 가족에게 인계됐다.

이날 나온 4개의 뼈조각들은 지난 24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